

4주차

예언과 예언서

한 승 훈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근대 정감록과 조선후기 예언서들

- 정감록이라는 예언서
- 넓은 의미의 정감록과 좁은 의미의 정감록
- 여러 개의 정감록

02. 예언서의 형식들

- 편년형과 역년형 예언
- 예언서의 장르들
- 산수비기와 도선비기

03. 예언의 역사적 변형

- “초포에 조수가 들어오면”
- “안성과 죽산 사이, 인천과 부평 사이”
- “성인이 나오고 즐거움이 당당할 것이다”
- “궁궁이 이롭다”

04. 예언서의 역사적 변용

- 도참비기는 금서였는가?
- 예언서에 대한 인식
- 기복, 호국, 혁세의 예언서

2차시

예언서의 형식들

학습목차

학습목표

- 조선후기 예언서들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다.
- 예언서가 변란 상황에서 이용된 양상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 편년형과 역년형 예언
- 예언서의 장르들
- 산수비기와 도선비기

편년형과 역년형 예언

예언의 표현 양식

- 1 직설적 표현 :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
- 2 풍수적 표현 : 풍수지리설을 통한 예언
- 3 우의적 표현 :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예언
- 4 파자적 표현 : 한자를 분해해서 예언 사실 표현

편년형 예언

“기장밭이 황무지가 되자 한양에 오얏을 심었네.
용과 뱀의 해에는
의(義)가 위태로움을 극복할 것이요,
상갑(上甲)의 해에는
공(公)이 지위를 되찾으리.
붉은 소의 봄에,
한(漢)은 대머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붉은 원숭이의 가을에,
주(周)는 흰머리에게서 사직을 보전하리라.”

《罪人李東奭等推案》

- 2023년 → 계묘(癸卯)
- 계(癸) → 검은색
- 묘(卯) → 토끼
- 계묘년 → “검은 토끼의 해”

2024년 → 갑진(甲辰) → “청룡의 해”

“붉은 소” → 정축(丁丑)

“붉은 원숭이” → 병신(丙申)

무신년(1728)

: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길은 막히며 연기가 끊어진다.”

《元八推案》

역년형 예언

“신라 김씨는 서른일곱 명의 왕 뒤에 왕씨에게 망한다.
왕씨는 나라가 있는 지 오백여 년 후에 이씨에게 망한다.
이씨는 나라가 있는 지 삼백여 년 후에 정씨에게 망한다.
정씨는 나라가 있는 지 이백여 년 후에 조씨에게 망한다.
조씨는 나라가 있는 지 백년도 되지 않아 위씨에게 망한다.”

《梁禹轍推案》

주상(정조)께서 말했다.

“이 책은 몇 년 전 역모사건 때 나도 본 적이 있다.
‘무슨 씨가 몇 년’, ‘무슨 씨가 몇 년’이라는 말이
그 속에 있었다.”

《承政院日記》 정조11년 7월 15일

“송악은 왕씨 사백 년의 땅이다.
한양은 이씨 삼백 년의 땅이다.
계룡은 정씨 오백 년의 땅이다.
가야는 조씨 팔백 년의 땅이다.
팔공은 왕씨 칠백 년의 땅이다.”

《李鄭求山論》

조선왕조의 수명?

- 18세기 → 300년
- 19세기 → 400년
- 20세기 → 500년

예언서의 장르들

예언과 예언서의 형식

서술 양식	예언 형태	점복 체계	암호화 형식
대화형 서술형	편년 역년 장소 지정	역점 풍수	파자 간지 변형 상징화

“편년으로 된 글은
천지의 운기(運氣)를 헤아려
점을 친 것이다.”

《元八推案》

	《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 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역대왕도본궁수》 歷代王都本宮數
고려	3701: 양으로 양을 받드니 왕도(王都)가 절개를 잃을 것이다. 양이 합하여 양을 품으니 연수가 오렐 것이다. 수(水)에 속하고 토(土)를 꺼린다.	태변(兌變) 2341: 상(象)은 앞에 수(水)가 있고 뒤에 토(土)가 있으며, 수위(數位)는 위아래가 모두 토(土)니, 신하가 강하고 임금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토가 모여 태녀(兌女)를 낳고, 또 토(土)가 합하여 화(火)를 품으니 끝내는 여알(女謁)의 변고가 많을 것이다. 목(木)이 합하여 금(金)을 품으니 자식이 부모를 반역할 상이다.
조선	4745: 음으로 음을 받드나, 왕씨보다 수가 모자란다. 양을 합하여 양을 품으니 삼한과 같지는 않다. 화(火)를 꺼리고 수(水)를 꺼린다.	건본(乾本) 9357: 상은 앞뒤가 모두 금(金)이고 수위는 위아래가 모두 화(火)니, 공도(孔道)가 무력에 굴복하여 마침내 번신(藩臣)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양(陽)으로 양(陽)을 받드니 도적이 궁에 불을 지를 것이며, 음(陰)이 합하여 음(陰)을 품으니 덕도(德島)로 군사를 보낼 것이다.

암호화 형식

- 파자법
 - 간지 변형
 - 상징화
- 예언을 신비한 것으로 만드는 기법

예언서 형식 구분의 예

- 《정감록》: 대화형, 역년형, 풍수
- 《남사고비결》: 서술형, 편년형, 상징화

산수비기와 도선비기

《산수비기(山水秘記)》를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도읍을 택하는 자가 승려의 말을 듣고 믿으면
조금 오래 갈 희망이 있고,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시비를 걸면
5대를 이어가지 못하여 찬탈의 화가 일어날 것이며,
겨우 200년이 지나면 판탕(板蕩)의 혼란이 이를 것이니
삼가고 삼가라.”

《산수비기(山水秘記)》는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지은 것인데
8백 년 후 일과 맞아 떨어지니 어찌 성승(聖僧)이 아니겠는가?

《五山說林草藁》

《산수비기》의 특징

- 서술형 / 불교, 풍수 개념 / 상징화

《도선비기》, 《도선기》, 《도선밀기》, 《옥룡기》

“왜(倭)와 비슷하지만
왜가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오는데,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궁궁(弓弓)이 이롭다.”

《罪人之曙推案》

“산은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으며,
궁궁이 이롭다.”

“호(胡)와 비슷하지만 왜(倭)는 아닌 것이
푸른 옷을 입고 남쪽에서 온다.”

《道說秘訣》

판본 간의 차이

“용두사미(龍頭蛇尾)”

“삼백육년(三百六年)”

《罪人之曙推案》

판본 간의 차이

“중국 장수로 묘년(卯年)에 태어난 사람이
중국에서 일어나 팔방(八方)을 밟고 일어설 것이니
여왕이 남쪽에서 돌아올 것이다.”

《李榮昌等推案》

조선후기 예언서 전승의 특징

- 고정된 몇몇 형식들
- 유동적인 텍스트

움겨 다니는 예언들

- “궁궁(弓弓)”, “사왜비왜(似倭非倭)”

정리

- 예언서의 고정된 형식적 특징들
- 세부적인 내용은 이동, 변형
- 다양한 예언서, 여러 판본

다음 차시에서는

- 조선시대 예언들의 역사적 변화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정다영

교안
이유정

영상
김록현